

# AAAP 서울총회 카운트 다운

## 5월 6일부터 워커히 국제회의장에서

〈대회전 심포지움 5월 2일 개최〉

정 홍 섭

(월간양계 기자)

**축산** 분야의 「아세안 게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서울 AAAP대회가 개최 1개월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축산물이 식량자급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축산인들의 높은 긍지와 축산업을 통한 국력신장을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한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매머드 축산행사로 그 관심도가 축산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적 차원에서 집중되고 있다.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 연합회(AAAP)는 아세아·태평양 연안국가의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와 학문발전의 촉진, 축산물 증산을 위한 전략수집과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8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8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 2차 대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제 3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케 된 것이다.

이번 한국총회는 전례없이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준비를 통해 학술행사(특강, 논문발표), 학술전시회, 산업전시회, 사교행사, 산업시찰, 관광프로그램의 본행사와 대회전 심포지움(I. 온대지역의 가축사양 체계, II. 축산물 가공이용 기술)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5월 2일(목)부터 11일(토)까지 개최되는데 본대회를 6일~10일(5일간, 워커히 국제회의장), 대회전 심포지움을 2일~4일(3일간) KAIST회의실, I, II로 나누어 개최, 각종 전시회를 5일~11일

동안(7일간, 여의도에서) 갖게된다.

본지는 대회개최 1개월 여를 앞두고 서울 AAAP대회의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는 AAAP 회장 한인규박사와 대회 조직위원장 김동암박사(한국축산학회 회장)를 찾아 보았다.

— AAAP 서울대회 개최일정은

대회전 심포지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5월 2일부터 3일간 「온대지역의 가축사양체계」와 「최근의 축산물 가공 기술」을 주제로 각각 개최되며, 본대회는 웨라튼 워커히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오전에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분과별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며, 대회중 5월 8일에는 관광점 국내축산시설 견학을 통해 관광지는 물론 양계, 양돈, 낙농단지, 사료공장 시설, 육가공·유가공장, 제약회사, 국가기관, 연구기관 등 국내의 발전하는 농촌의 면모와 축산현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 대회규모는

400여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등록상황으로 미루어보아 1천 3백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인데 이는 제 2회 필리핀대회의 3배 정도의 규모로 세계축산대회(WAAP)의 행



△ AAAP 회장 한인규 박사



△ 대회조직위원장 김동암 박사

사규모와 맞먹는것 같습니다.

참가국으로는 정회원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자유중국 등 9개국과 옵서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리랑카, 브루나이, 캐나다, FAO, WAAP, EAAP 등 10개국이 참가하는데 앞으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공, 중동각국이 가입할 예정입니다.

질적으로도 세계적인 NRC 사양표준에 관계하는 많은 석학이 대거 참가하여 대회를 통해 국내 사양표준 제정에 이정표가 될 것이며 동양인의 식생활과 축산물의 중요성, 산간초지의 개발 전략, 지질조사료의 활용방안, 아세아 축산국의 발전방향, 사료자원의 개발, 콜레스테롤의 집중적인 연구, 사료가공기술 등 광범위한 의견이 교환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논문집, 한국축산안내 책자등 7권의 자료가 유인물로 제공됩니다.

특히 국내 축산농가의 양축가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 대회기간중 농수축산신보가 주최 하고 농수산부, 축협, KBS,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국내최대의 축산 산업전시회 (제 1회 한국 축산 박람회)가 여의도 한국기계공업전시관에서, 워커히에서는 학술전시회가 국내 재래가축품종인 한우, 진도계, 흑염소, 제주마 등이 소개됩니다.

— 재외(在外) 축산과학자들도 대거 초청된다는데

이번 기회에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산과학자들(박사학위취득)을 전문분야별로 30여명을 초빙하여 논문도 발표하고 모국의 축산발전과 모교의 명예에 기여하게 되며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진행을 위한 통역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축산인의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진흥에도 기여도가 높다고 보는데

지난 82년말 대회유치 이후 전축산인의 뜨거운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 정부의 지원, 회원국의 높은 참가의지, 조직위원들의 성의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며 기간중 국내 전축산인의 화합을 통한 단결력을 과시하여 이제까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입장에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립을 끝마쳤으며 국제적 지위향상에 큰 기회가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는 AAAP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기회로 한국에 와서 활짝 꽃이피 다음 대회로 넘겨줄 수 있다는데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86,'88 체육행사를 앞둔 한국의 우수성과 선진화를 전세계에 널리 소개하여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대회기간중에 제9차 국제사료정보센터대회가 개최되기도 하는데 세계 축산인의 관심도는 현재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름다운 한국의 서울 AAAP총회의 성공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 LP가스시대 도래

내린 가스값으로 고통스런 육추에서 해방되어  
편하고 효율적인 육추를...

### 과학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7-1  
☎ 445-0212, 1886



적외선 가스육추기는 태양열처럼 아래로 내려쬐인다. 병아리와 바닥이 잘 보온되며, 육추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노동력을 80% 이상 절약한다.